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정연우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성시경	042-481-5437
 		2019년 2월 7일(목) 배포(09:00)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 6개 대학·공공(연)과 특허갭펀드 업무협약 체결

-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성숙도를 높여 기업이전 활성화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월 8일(금)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제1기 특허갭펀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특허기술의 창출 및 활용을 통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 특허갭펀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간의 수준 차이(gap)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 특허기술을 선정해 기술성숙도를 높여 기업에 이전한 후 로열티 일부를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기존 정부지원사업과 차이가 있다.
- 이번 제1기 특허갭펀드에는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나다 순)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이번 특허갭펀드에는 23개 주요 대학·공공(연)이 신청하여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충분한 특허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사업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특허캐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경북대 등 6개 기관은 사업종료 후에도 특허캐펀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로열티 일부를 특허캐펀드가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지식재산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 충분한 특허비용 확보, 적절한 대리인 비용 지급 등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전된 특허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대학·공공(연)의 유망 특허기술을 기업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우리 대학·공공(연)들이 유망 특허기술의 해외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특허캐펀드로 특허가치를 높여, 지식재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끌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붙임 : 한국형 특허캐펀드 주요 추진 내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성시경 사무관(☎ 042-481-54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구조 개편**

□ 포트폴리오 사업을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갭펀드 방식으로 전환

○ 포트폴리오 사업(33.76억원) 일부를 특허갭펀드로 전환(18억원)

* 기존 포트폴리오 구축형 및 상용화 검증형은 축소 운영

○ IP경영 규모에 맞게 기관당 1~4억원 차등 지원

* 기술이전수입 및 특허비용 규모에 따라 억원 단위로 신청

< 규모별 연간 지원금액(안) >

연간 지원금액	4억원	3억원	2억원	1억원
최근 3년 평균 기술이전수입+특허비용	4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기타

< 포트폴리오 사업 지원유형별 예산('18~'19) >

연도	전체*	특허갭펀드 (기관당 1~4억원)	포트폴리오 구축형 (과제당 4,500만원)	상용화 검증형 (과제당 7,000만원)
'18	20.75억원	-	6.75억원(15개 과제)	14억원(20개 과제)
'19	28.1억원	18억원	4.5억원(10개 과제)	5.6억원(8개 과제)

* 사업전담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사업관리비 제외

□ 특허갭펀드 정착을 위한 다년도 지원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3년간('19~'21) 1차 지원 실시

○ 중장기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3년간 2차 지원('25~'27) 추진

* 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 특허갭펀드 재투자 실적 등을 6년차 말에 평가

< 연도별 지원계획('19~'27) >

1차 지원			성과숙성기간			2차 지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 기관별 지원금 : 1차 지원 3~15억원, 2차 지원 3~15억원(합계 6~30억원)

② 운영기관 선정

□ 선정방식

-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통합평가
- 선정평가 상위기관부터 사업예산(1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 배정

□ 평가지표

- 회수계획의 적절성(40%)
 - 상황별 예상 회수규모* (30%)
 - * 기관내 과제별 지원금액, 기술료 등에 따른 예상 회수금액
 - 회수계획에 대한 연구자의 수용도(10%)
 - * 이해관계(소속, 출신학교)가 없고, 기술이전이 활발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가 심사
- 투자계획의 적절성(30%)
 - '19년도 지원대상 유망기술 및 지원규모의 적절성
 - * ①지원대상의 시장성, ②지원의 시급성, ③지원규모의 적절성(지원금액 대비 기대수익)
- 운영체계의 효율성(30%)
 - 특허품질 강화계획(10%)
 - * 특허명세서 단가 현실화 및 해외출원 강화 등
 - 운영인력의 전문성(10%)
 - * 핵심운영인력의 TLO 또는 IP업계 근속년수 등
 - 특허캐펀드 운영 지원계획(10%)
 - * 내·외부 가용자원 활용 등

< 선정평가 지표 >

평가지표	배점	세부 지표(배점)
회수계획의 적절성	40	회수규모(30), 연구자 수용도(10)
투자계획의 적절성	30	지원대상 유망기술 및 지원규모의 적절성(30)
운영체계의 효율성	30	특허품질 강화계획(10), 운영인력의 전문성(10), 특허캐펀드 운영 지원계획(10)

③ 사업관리

□ (성과관리) TLO 자율재량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

- 2차 지원을 통한 장기 대형성과 창출* 및 특허갭펀드 지속기반** 마련

* (기존) 당해연도 성과제출을 위한 조급한 검증 및 계약, 선급기술료 중심의 실적반영
→ (개선) 최장 6년(1차+성과숙성)의 충분한 검증 및 협상, 경상기술료까지 실적반영

** 특허갭펀드 재투자 실적 중심으로 2차 지원여부 결정

- 연도별 성과지표* 등 단기적 성과관리는 최소화

- 투자관련 세부사항은 TLO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기존) 사업전담기관(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유망기술 선정하여 4,500~7,000만원 지원
→ (개선) 대학·공공연 TLO가 자율적으로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최적의 지원규모 결정

□ (사업비 관리) 보조금 및 회수금 사용관리 강화

- 특허갭펀드 지속을 위해 보조금과 회수금 사용항목*을 동일**하게 제한

* 특허 FTO(Free to Operate 여부 확인) 및 포트폴리오 구축(검색 및 라이선스), 특허검증(실험, 시험),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SMK제작, 회의비, 여비) 관련 비용

** 단, 회수금의 경우 운영인력 인건비 지출을 허용(지출의 20%까지)

- 보조금 및 회수금 각각 별도의 전용계좌 개설·관리

④ 성과확산

□ (사후관리) 지원종료 후 5년간 특허갭펀드 운영내역 보고

- 특허갭펀드 지속운영을 위한 회수금 사용내역 보고

- 특허갭펀드 운영의 장기적 성과측정을 위한 사업실적 보고

□ (성과확산) 민간재원 및 추가예산 확보를 통한 특허갭펀드 확산

- 지원종료 후 고수익 운영기관의 자체재원(동문기부금 등) 특허갭펀드 추가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모태펀드 공동출자 등 지원 추진

- 중장기 예산 확보를 통한 특허갭펀드 운영기관 확대 추진

□ **Oxford 대학교 : Oxford University Innovation(구, Isis)가 운영**

○ (개요) 캡펀드형 유효성 검증 프로그램 다수 운영

년도	프로그램 및 자원	투자 항목	비고
1998	Isis Seed Fund ▶ 대학 £1백만(15억원)		Oxford UCSF에 통합(1999)
1999	Oxford UCSF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 정부 £3백만(45억원) ▶ 대학 £1백만(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선행기술조사, 실험용 모형, 상업시연, 시제품, 사업계획 지원, 창업기업투자 • 건당 최대 £25만(3.8억원) ※누적 £1천만(150억원) 이상 투자 	펀드 소진(2003) 회수 시작(2006) 투자 재개(2007) 현재 운영중
2003	Isis University Innovation Fund ▶ 대학 £1백만(약 15억원)	Oxford UCSF와 동일	펀드 소진 OIF에 통합
2004	PoC Fund ▶ 정부 £45만(약 6.8억원)	PoC	2년간 운영(2006)
2011	OIF(Oxford Invention Fund) ▶ 산업·금융·개인 £1.4백만(약 21억원)	Oxford UCSF와 동일	현재 운영중
2014	UOIF1 (University of Oxford Innovation Fund)	기술이전기업(지분투자)	현재 운영중
2015	UOIF2		
2016	UOIF3		

○ (회수-재투자) 기술료 일부를 캡펀드에 직접 배분

* 특허·법률비용을 선공제한 순기술료수입 중 대학몫 10% 중 일부를 캡펀드에 배분

□ **Stanford 대학교 : OTL(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이 운영**

○ (개요) OTL은 '97년부터 SIP라는 PoC 및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재단에서 기술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년도	프로그램 및 자원	투자 항목	비고
1997	Birdseed Fund(펀돈 펀드) ▶ 15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시제품 개발, 실험용 모형 • 건당 최대 2.5만 달러 	SIP funding으로 계승(2013)
2000	Gap Fund ▶ 120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C • 건당 최대 25만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시범운영 • 연이자 8%
2013	SIP(Stanford Innovation Project) ▶ 교무처장 겸 연구처장 후원	시제품, 검사, 스케일업 연구장비	현재 운영중

○ (회수-재투자) 기술료의 15%를 TLO가 회수하여 SIP에 재투자